한국문학논총 제68집(2014. 12) 537~566쪽

이주홍의 전기적 정보와 오독의 문제*

민 병 욱**

차 례

1. 문제의 제기
2. 전기적 정보의 실체
3. 전기적 정보의 혼란과 오독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이주홍의 문학연구에 있어서 전기적 정보의 오류와 정치적 해석의 재생산을 살펴본 보았다.

먼저, 이주홍의 전기적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생에서 상경 직전까지의 고향 생활, 상경에서 귀향하기까지의 서울 고학생 생활, 서울에서 낙향하여 도일하기직전까지의 고향 생활, 도일하여 귀국하기 직전까지의 일본 체류 생활, 귀국하여 해방 직후까지의 서울 생활, 부산에서의 생활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그가 가장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전기적 정보는 출생에서 상경 직전까지의 고향 생활이다. 그의 고향 생활은,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오직 생존 욕망을 가진 어린 시절, 서당을 다니면서 중국 고전을 배우고 한시를 창작한 시절, 그림 그리기를 유일한 취미로 가진 보통학교 시절, 당시 어린이 잡지들에 접하지

*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수

만 전혀 흥미를 가지지 못한 보통학교 졸업 후 시기로 구별된다. 이러한 고향 생활을 기억의 혼란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추억담으로 제시하면서 그는 유교적 사유와 한시 창작 경험, 회화 경험을 문학예술적 생애의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이어서 그는 상경에서 귀향하기까지의 서울 고학생 생활과 낙향하여 도일하기 직전까지의 낙향생활을 한다. 이 시기는 그는 서구 영화와 광무대의 구극, 김소랑 김도산 일행의 신파극, 남사당 공연, 동시기 문학 잡지와 동인지를 접하고 이를 모방하여 그는 연극 공연과 연극놀이를 하거나 사제잡지들을 만들기도 한다. 그 결과 그는 기억의 의도적인 혼란을 통한 정보를 재구성하지만 동시대 리얼리즘 소설을 문학적 스승이나 모델로 설정하지도 못하고 이미 해체 과정에 있는 지방순회 극단의 신파극 공연을 받아들임으로써 연극적 스승이나 모델도 설정하지 못한다. 아울러 그는 문학적 연극적 스승이나 이상적 모델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면서 잡지『개벽』을 스승으로 삼고서 문학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아동문학으로 진입하여 잡지를 만들거나 표지를 장정을 하는 길러 나선다. 결국 문학의 문전에서 입문도 하지 않고 그는 도일하여 귀국하기 직전까지의 일본 체류 생활을 하지만 그 생활을 거의 밝히지 않고 기억의 혼란과 불분명한 회상으로 '불온한' 예술가라는 기억만을 내세운다. 그 기억들은 그가 일제에 저항한 '불온'한 문학예술가임을 증명하는 정치적 해석의 근거로 증폭하게 되는 것은 물론 특정 집단에 의해서 부산지역 문학의 대가에서 한국 근대문학사의 대가로 우상화 되는 계기가 된다. '불온성'에 대한 증폭은 그가 귀국하여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계속된다. 문제는 아직 실증되지 않는 그의 전기적 정보와 정치적 해석의 재생산이 계속 '불온'하게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제어 : 이주홍, 부산문학, 지역문학, 이주홍 추종자, 전기적 정보, 기억의 혼란, 정보의 오독, 오독의 재생산, 불령선인, 볼온, 정치적 해석

1. 문제의 제기

이주홍의 문학과 삶에 관한 선행 연구는 동화를 중심으로 한 아동문학에서 소설과 시, 희곡 및 연극운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연구의 초점도 작품구조에서 작가의식으로 이동하면서 부산지역 문학사적 자리매김[1]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그의 작가의식, 특히 프로문학적 특성과 프로계급의식, 현실비판과 비판적 역사의식을 도출하면서 '김정한과 더불어 부산 문학의 터를 다진 작가이며, 부산 문단의 개척자, 거목'[2]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지역 문학사적 자리매김에 있어서 '지역문학의 경우에 해당 문학 텍스트가 가진 고유한 결이 무엇인가와 그 텍스트가 얼마만큼 유의미한가를 논증하는 과정이 없이 그저 상찬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가 폐쇄적인 구조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는 것[3]이다. 특히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한 작품론을 제외하고는 선행 연구 대부분은 그의 전기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작가의식을 상찬하고 '부산 문단의 거목이자 대부'임을 합리화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그의 문학연구에 있어서 선행 연구들이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는 전기적 정보[4], 특히

---

1) 선행 연구들은 부산문인협회에서 발간한 『부산문학사』(1997)에서 '해방 이후 김정한과 더불어 이주홍을 부산소설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설정한 이래 2000년을 전후 하여 한국 근대문학사와 소설사의 자리매김으로 나아가고자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이러한 평가는 이주홍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펴낸 저서들과 문학 잡지들에서 공통된다.

3) 김만석, 「요산과 향파 소설의 공간 정치학」, 『인문학 논총 26』,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3쪽.

4) 그의 생애 연보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류종렬, 「이주홍 연보」,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423~437쪽.
박태일, 「이주홍론 - 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소설시대 6』, 한국작가교수회, 평민사, 2003.10, 87~109쪽

1945년 8·15 해방 이전까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기적 정보의 실체

그의 문학과 삶에 대한 전기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필집으로는 ①『예술과 인생』(세기문화사, 1960), ②『조개껍질과의 대화』(성문각, 1961), ③『뒷골목의 낙서』(을유문화사, 1966), ④『격랑을 타고』(삼성출판사, 1976)가 있다. 이 책들을 중심으로 그의 전기적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생애(연보)	문학적 경험 혹은 영향
1906 (출생) ~ 1920 (상경 직전)	0 출생과 집안 형편 및 고향의 모습(④-239~251) (6세) 서당생활 : 『천자문』과 『동몽선습』 학습(①-213, ③-145~148) (6,7세) 약장수의 축음기 노래 경험(①-201~203) (7,8세) 영남 유학 태두 김사문으로부터 『동문선습』 학습(④-250) (9세) 맛난 음식과 값진 의복에의 유일한 욕망(①-204~205) (9세) 천도교 신자 백노인과의 첫 만남(①-213) (보통학교 시기) 그림 그리기 취미(④-257)와 외가에 있는 잡지 『아이들보이』, 『붉은 저고리』, 『청춘』 등으로부터 흥미를 못 느낌(④-257) (여나무 살) 외가에 있는 잡지 『아이들보이』, 『붉은 저고리』, 『청춘』 등으로부터 흥미를 못 느낌(①-209) (13세 보통학교 졸업 후) 서당 경험 : 『동몽선습』, 『통감』, 『논어』, 『맹자』, 『연주시』, 『고문진보』 등의 학습과 한시 창작(①-201~211, ④

염희경, 「이주홍 연구 서지」, 김인환·정호웅 외,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2006』, 민음사, 2006, 137~155쪽.

5) 도식에서는 논술의 편의상 인용한 수필집과 수록된 페이지를 원글자와 숫자로 표현한다. 예컨대 '①-201~203'은 수필집 '①『예술과 인생』(세기문화사, 1960)의 201쪽에서 203쪽까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문학적 경험 혹은 영향>의 칸에 괄호로 묶어 있는, 예컨대 (6세) 혹은 (6,7세) 혹은 (1921년) 등은 수필집의 원문 표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아울러 본문을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자를 한글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현대 문법에 맞게 바꾸며, 인용의 말미에 도식에서 사용한 약호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259~261) (14세) 3.1 만세 경험(④-261~263) (15세) 면서기후보자 시험 합격했으나 취직하지 않음(①-206)
1920 (상경 직후) ~ 1921 (귀향 직전)	(기미만세 후) 서울 유학 : 기아 및 출방 경험(①-212, ④-62~63)과 문학예술적 경험 : 서양영화 <명금>과 <동도>, 광무대 구극, 김소랑 임도산[6] 일행의 신파극 관람 경험과 이광수, 이상협, 주요한의 기억(①-212) (15세) 서울 고학생활의 고난(④-118) (16세) 서울 고학생활 : 창작의 소재가 되지 못한 인천 앞바다(①-157~159) (15,6세) 잡지 독서의 삼매경(①-208)
1921 (귀향 직후) ~ 1924 (도일 직전)	(귀향 직후) 목동생활과 『개벽』의 영향(①-212) (귀향 직후) 백노인 집으로 출입으로 여러 잡지와 문예 독서(①-213~214, ④-274) (1921년) 『개벽』지에 실린 현철과 황석우 간의 논쟁으로부터의 경험(①-216~217, ④-275~276) (1921년) 『금성』, 『장미촌』, 『영대』 등의 독서와 노자영, 황석우 시인의 기억(①-209) (16세) 유랑극단 협률사의 <춘향전>과 <심청전>, 김소랑 일행의 공연, 남사당의 연예물 <삼동가리> <버꾸춤> 공연 (③-265, ④-270~271) (16세) 현진건의 <病友>를 처음 읽고 모작하여 소설 <病母>를 쓰고 공연도 한 경험(①-214, ③-265, ④-270~271) (16세) 유랑극단 공연의 감동과 현진건의 <貧妻>의 충동으로 쓰여진 <病母>는 자신의 기념비적 작품(④- 271) (1921년) 우편국 놀이의 창안(④-272~273) (16세) 『개벽』이나 『신인간』을 모방하여 종합잡지 『삼우』, 『신소년』, 단면신문 등을 만듦(①-217~219, ④-275~279) (16세) 서울 『신소년』을 우편 구독하여 정열모, 신명균, 이호성, 이병화, 맹계천에의 기억(①-219) (16세) 『신소년』의 독자투고란에 44조 동요 <잠자는 동생>을 가명으로 투고하여 게제 예정으로 발표됨(①-279) (16세) 미술가와 음악가의 꿈을 꾸다가 문학자가 됨(①-206~207, ④-279-281)
1924 (도일 직후) ~ 1932(1933) (귀국 직전)	(20세 전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교포친구들과 공회당에서 연극공연(③-266) 1925년 『신소년』에 동화 <뱀새끼의 무도> 수록되어 있음을 발표(④-285)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 <가난과 사랑> 입선(④-282) (1929년) 히로시마에서 교포교육을 위한 사립 근영학원의 교사생활(④-283)

	(1931년) 동경 南千住에서의 미전과 연극 구경 경험- 아동문학가 穎木楠郎의 소개로 문학신문, 부인잡지, 등에 동요와 미술신문에 만화 발표, 大月源二와 村山知義의 과찬을 받음 (③-131~133)
	(드디어) 현해탄을 건너 간 서울 생활(④-283~291)
1932(1933) (귀국 직후) ~ 1945.8.15. (해방 직전)	(27,8세 전후) 동경에서 귀향하여 고향 합천에서『조선문단』에 소설 발표와 농민조합운동의 영향으로 투쟁적인 연극 순회공연(③-266) (34,5세) 무렵『매일신보』의 희곡현상 모집 <여명>(필명 이대연, 원제 시나리오 동학당) 당선, 조선영화사의 시나리오 현상 모집에 <장미의 풍속>(필명 어하영)으로 당선(③-266~267, ④-291~296) (해방 전) 합천 감방과 거창검사국에서 한시 창작(①-76~86, ②-202~203, ④-296, 298)
1945.8.15. (해방 직후) ~ 1947 (부산 정착) ~1987 (영면)	(해방 후) 서울 배재중학교에서 연극공연(③-268)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 동래고교에서부터 학생극 운동과 연극 공연(③-268~271) (해방 후) 부산에서의 연극 공연(④-271) (6.25) 부산『민주신보사』의 희곡 모집에 <성웅 이순신> 당선

도식에서와 같이 그의 전기적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ⅰ) 출생에서 상경 직전까지의 고향 생활, ⅱ) 상경에서 귀향하기까지의 서울 고학생 생활, ⅲ) 서울에서 낙향하여 도일하기직전까지의 고향 생활, ⅳ) 도일하여 귀국하기 직전까지의 일본 체류 생활, ⅴ) 귀국하여 해방 직후까지의 서울 생활, ⅵ) 부산에서의 생활로 나누어진다. 그 가운데 ⅰ), ⅱ), ⅲ)의 시기는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를 꿈꾸던 문학예술 지망생 시절, ⅳ), ⅴ), ⅵ)의 시기는 문학예술가로서 활동하던 시절이다.

6) 그가 네 권의 수필집에서 '김소랑 임도산 일행의 신파'라고 표기한 것은 1919년 이후 '김소랑 김도산 일행의 신파'라고 정정해야 한다. 김소랑은 1918년 취성좌를 조직하여 1929년 해산할 때까지 신파극 공연을 주도한 반면 김도산은 1917년 조선신구극개량단과 1919년 신극좌를 만들어 연쇄극 공연을 주도하다가 1923년 죽음을 맞이한다. 그가 표현한 '김소랑 임도산 일행의 신파'는 정확하게 김소랑의 신파극 공연과 김도산의 연쇄극 상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서연호,『한국연극사』, 연극과 인간사, 2003, 89쪽 이하.

3. 전기적 정보의 혼란과 오독

3.1 기억의 회상과 정보의 재확인

그가 가장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전기적 정보는 ⅰ) 출생에서 상경 직전까지의 고향 생활이다. 그의 고향 생활은, '문학적 회상(1,2,3)'을 부제로 한 「예술과 인생」(①)에서, '한 알의 좁쌀, 고향산천, 개꽃의 사연, 서당시절' 등을 기억의 파편들을 소제목으로 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④)에서 추억담으로 표현되며, 자서적인 수필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열 살 미만의 어린 나의 이 세상에 있어서의 전 욕망이란 것은 단지 맛난 음식을 욕심껏 먹는 것과 값진 의복을 군색 없이 입어보자는 외에 달리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따위의 뚜렷한 방향이 서 있었을 턱은 없었다.'(①-205)고 할 만큼 그는 문학예술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둘째,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과 졸업한 후, 그는 서당을 다니면서 『논어』를 비롯한 중국 고전을 배우고 한시를 창작하기도 한다.(①-201~211, ③-145~148, ④-250, ④-259~261)

셋째, 보통학교 시절 그는 '교과서의 삽화, 소설의 표지 그림, 상표 그림 등'을 그리는 것(④-257)을 취미로 할 만큼 몰두하여 즐거움을 가진다.

넷째, 아울러 그 시절에서부터 졸업 후에도, 외숙과 이웃집 백 노인으로부터 『아이들보이』(1913.9~1914.8), 『붉은 저고리』(1913.1~6), 『청춘』(1914.10~1918.9)을 접하지만 그는 흥미를 가지지 못한다.(①-209, 213, ④-257)

이러한 고향 생활을 그는 ①(1954.1.23.~25)에서 ④(1974.8.31.~9.5)에 이르기까지 기억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추억담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억담 형식에서 확인한 전기적 정보[7]는 그가 유교적 사유와 한시 창작

경험, 회화 경험을 문학예술적 생애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3.2 기억의 혼란과 정보의 재구성

ⅰ) 의 시기에서 시작하여 ⅱ), ⅲ)의 시기에 이르러서 그는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를 꿈꾸던 문학예술 지망생 시절을 거치고 문학예술가가 된다. 그는 15세(1920)에 상경하여 고학생활을 하다가 16세(1921)에 낙향하여 '미술가와 음악가의 꿈을 꾸다가 문학자가 되었다(①-206~207, ④-279~281)'고 밝힌다. 이 시기를 '보통학교를 나와 만세 나던 해는 서당생활 1년, 다음엔 서울 고학 1년, 다음 해엔 귀향하여 목동생활을 했으나 이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었다'(①-209)'고 밝힌다.

그의 행복은 부친으로부터 요구 받은 두 가지 과제(①-205~206)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하나는 '아버지 자신이 공부를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나마 공부를 시켜주셔서 공부 못하신 원풀이를 해 보자는 것'과 '집이 지나치게 구차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시켜서 장래 월급쟁이를 만들어 보자 하시는 것'이다. 보통학교 입학 전과 졸업 후 두 차례에 걸쳐 서당에 다니면서 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하게도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맘에 들지 않는 것에만 그치지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게 무섭기도조차 해서' 라고 회상(①-206)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열다섯 살 적이었던가 아버님의 분부를 거스를 길이 없어서 그 때 맨 첨으로 있었던 면서기후보자시험에 응모를 했다. 다행히 이 시험에

---

7) 이런 의미에서 그는 영면할 때까지 한시의 창작과 그림 그리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그의 기억으로 제시되는 포괄적 연대기에서 증거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민병욱, 『문학의 이론』, 탑북스, 2012, 123~124쪽.
이유생, 「전기 연구의 이론과 현대적 의미」, 『영미어문학 78』, 한국여미어문학회, 2006, 139~159.

> 합격이 되었다. 그러나 열다섯 살의 나이로 면서기가 될 수 없었다. 그림 속의 떡일 뿐이었다. 서울에 가서 몇 해 고학을 하다 실패하고 돌아온 나는 아버님이 애타시는 심정과는 딴판으로 취직해 볼 생각은 손톱만큼 없이 음악이며, 미술이며, 문학이며 날을 보냈다.(①-206)

인용에서 확인할 것은 연도이다. '열다섯 살 적'이란 그가 서울로 고학을 간 1920년[8]이다. '서울로 가서 몇 해 고학을 하다 실패하고'는 정확하게 '몇 해'가 아니라 1920년과 1921년 사이의 '1 년'이다. 인용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그는 1920년 15세 '면서기후보자시험'에 합격했지만 서울로 가서 1 년 정도 고학생으로 지내다가 실패하고 1921년 낙향하여 문학가를 꿈꾼다가 '문학의 문전'(④-279~282)까지 다다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서구 영화와 광무대의 구극, 김소랑 김도산 일행의 신파극, 남사당 공연 등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무엇보다도 동시기 잡지들『개벽』,『금성』,『장미촌』,『영대』,『신소년』 등을 통하여 근대시와 소설 및 아동문학 등을 읽고 집중한다. 특히 잡지『개벽』을 '참으로 나에게 광명을 던져 준 것이었다'(①-212)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모방하여 '사제 잡지(④-274~276)'를 제작하기도 하고, 구극과 신파극 및 남사당 공연을 모방하여 연극공연이나 '우체국놀이'(④-272~274)도 한다. 이러한 문학적 탐색 과정에서 가장 큰 전환을 가져다 준 것은 현진건의 <빈처>와 그의 희곡 작품 <病母>이다.

이에 관하여 그는 세 차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 맨 첨으로 읽은 소설은 빙허가 쓴 것이었던가는 잘 기억이 나지

8) 이에 관련하여 선행 연구는 '1920년 상경하여 고학을 함, 1924년 경성 한성중학교 졸업'으로 혹은 '이 시기 향파는 직접 서울로 올라가 학업을 닦지는 않고 독학생을 위해 유행하고 있었던 통신학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15세 1920년 서울로 상경하여 고학생 생활을 했다는 사실(①-157~159, 212, ④-62~63, 118)을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다.

않으나 아무튼 <病友>라는 것이었다. … 얼마나 감명이 깊었던지 나는 금방으로 모작하여 <病母>라는 소설을 쓰고 또 즉각 각색을 하여 마을 동무들과 함께 방 가운데 담요를 쳐서 놓고는 연극을 했다. 이것이 나의 소설로서는 첫 작품이었고 동시에 굿쟁이로서 친히 무대에 올라서 본 것도 맨 첨의 일이었다. 열여섯 살 쩍의 일이었으니 (①-214)

㉯ 맨 첨으로 연극을 해 본 것은 열여섯 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각본은 내가 손수 쓴 단막의 <病母>라는 것으로서 … 물론 이것은 방안에서 가만히 해 본 소꿉연극이었던 것이지만 내가 흥미를 갖게 된 직접 간접의 영향은 그 당시 지방순회를 하던 구극의 협률사와 신파의 김소랑 임도산 일행들에게 받았던 것이었다. 누가 쓴 단편이었던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나, 잡지『개벽』에 나 있는 <病友>라는 작품을 읽고서 크게 감동을 한 나머지 나는 그것을 본 따 <病母>를 썼었다. 가난 속에 사는 나무꾼 아이와 병든 어머니의 슬픔을 그린 것인데 이것이 글로 쓴 내 작품으로서는 제 1호가 되는 셈이다.(③-265)

㉰ 1921년 개벽지에 발표한 <빈처>는 … 그 작품에 어떻게나 큰 감동을 받았던지 … 결심한 끝에 희곡 <病母>를 썼다. 인물과 상황을 바꾼 비극물로서 연극을 재생시켜 보자는 대웅지였다. … 나는 유랑극단의 연극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던 터로 그런 정서적 배경에 빙허의 소설이 준 충동으로 씌여진 처녀 희곡 <병모>는 나의 문학 지망 동기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념비적인 싹이 된 셈이다. (④-271, 1976.7.20.)

㉮는「마력의 세계 - 문학적 회상(3)」을 원제로 하여『국제신문』1954년 1월 25일에 발표한 것을 수필집 ①에 재수록한 것이다. ㉯는「나의 연극론 노우트」를 제목으로 하여 1966년 9월 30일에 발간된 ③에 수록된 것이다. ㉰는「청춘은 아름다워라 - 내 고장 명사들의 인생 비망록」을 제목으로 하여『국제신문』1974년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재된 것을「이 세상 태어나서」로 개제하여 1976년 6월 20일에 발간된 ④에 재수록한 것이다. 그는 1954년, 1966년, 1974년 세 차례에 걸쳐서 희곡 작품 <病母>에 대한 영향 관계[9]를 수정한다.

그 수정은 희곡 작품 <病母>와 공연을 '<빈처>의 모작 소설과 연극으로의 각색 → 지방순회 구극 및 신파 극단의 영향에 의해 <빈처>를 모작한 희곡작품 → 지방순회 구극 및 신파 극단의 감동에 의한 <빈처>의 재창작과 희곡화'로 규정한다. 곧 그는 작품을 '모작 소설과 각색→ 소설을 모작한 희곡→ 재창작과 희곡화'으로 수정한다.

기억의 흔적을 통한 이러한 정보의 재구성은 그의 희곡작품 <病母>가 그것 자체로만 아니라 현진건의 <빈처> 및 당시 구극 및 신파극을 공연하는 지방순회극단 간의 영향[10] 속에서 이해가능하다는 것을 메시지화 한다. 그는 <病母> 공연을 지방순회극단의 직간접 영향으로 들면서 작품의 창작에 대한 현진건의 <빈처>을 '감명과 감동'에서 '충동'으로 기술하여 그 영향을 배제한다. 그는 희곡 작품 <病母>를 '가난 속에 사는 나무꾼 아이와 병든 어머니의 슬픔'(㉮)으로 기술하여 <빈처>의 독창적인 상상력의 공간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어서 그는 <病母>의 공연을 지방순회극단의 관극 경험으로 덧붙여 기술함으로써 제거된 <빈처>의 독창적인 상상력의 공간을 정화하고자 한다. 그는 <病母>에서 <빈처>로 대표되는 동시대 리얼리즘 소설을 문학적 스승이나 모델로 설정하지도 못하고 이미 해체 과정에 있는 지방

---

9) 영향 관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포괄적 연대기로 이루어져 있는 그의 자서전적 수필집들은 텍스트로서 이미 기능하다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문학과 삶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나 그의 옹호론자들에게 포괄적 연대기는 이미 어떤 회의도 용납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확정된 영역의 완성 텍스트로서 논저의 서두나 말미에 '연보'로 제시된다. 이럴 경우 '연보'에 제시된 문학 외적인 것들이 문학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준거로 작동하여 작가의 세계를 합리화 시켜준다는 것이다. 오히려 포괄적 연대기를 통하여 증거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근거로 하여 선후배 문학예술가의 영향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희곡 병모의 창작과 공연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논의한 바 있다.
민병욱, 「향파 연극의 지역예술사적 위치」, 『이주홍 문학 저널 4』, 219~224쪽.
_____, 『문학의 이론』, 123~124쪽.

10) '영향의 불안'을 중심으로 한 영향의 이론은 H.블룸의 다음 저서에 힘입고 있다.
H.블룸, 양석원 옮김, 『영향에 대한 불안』, 문학과 지성사, 2012
_____, 윤호병 옮김, 『시적 영향에 대한 불안』, 고려원, 1991

순회 극단[11]의 신파극 공연을 받아들임으로써 연극적 스승이나 모델도 설정하지 못한다. 문학적 연극적 스승이나 이상적 모델이 없음은 그가 '나의 주위에는 한 사람의 지도해 주는 선배도 없었고'(①-212), '『개벽』이 나의 유일한 무언의 스승이었고 동시에 나로 하여금 문학의 동산 속에 들게 해준 은혜로운 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①-215)고 진술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동시대 문학이나 연극의 주도세력으로 진입할 수도 없으므로 그가 가야할 지점은 소설 외적, 연극 외적 영역이다. 그 영역은 소설을 중심으로 한 문학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아동문학으로 진입하는 것이며, 스승인 『개벽』을 모델로 하여 잡지를 만들거나 표지를 장정을 하는 것이다. 그의 선택은 아동문학 잡지 『신소년』의 <독자투고란>에 '동요 <잠자는 동생>'(①-279)로 나타나며 스스로 '문학의 문전'(④-279~282)이라고 표현한다.

'문학의 문전'에 이르러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문학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곧 문학작품을 창작 발표하는 것이다. 이를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비록 독자투고란에 작품이 실리는 하찮은 정도였다 하더라도 … 합천에서는 내가 맨 첫 번째 일거라고 자부했을 소년 나에게 있어서는 … 문학의 문턱에는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그래서 계속해 투고를 하는 일방, 문예작품뿐만 아니라 표지, 그림까지 있는 재주를 다 그려 보냈는데 孫一峰, 李鐘雨, 高義東 같은 대가가 맡아 있던 형편에 의당 그랬어야할 일이었겠지만 그것만은 채택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뒷날에 이런 인연이 맺어져 있던 『신소년』의 편집을 내가 맡아볼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소설가은 기연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④-282)[12]

---

11) 그가 동시대 문학작품을 수용한 것은 『개벽』을 중심으로 한 잡지를 통해서 가능했지만 고향 합천에서 동시대 연극을 수용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상론한 바 있다.
민병욱, 「향파 연극의 지역예술사적 위치」, 215~219쪽.

12) 인용의 '孫一峰, 李鐘雨, 高義東 같은 대가'에서 '李鐘雨'는 '李鐘禹'로 고쳐야 한다. 당시 『신소년』을 비롯한 잡지에 삽화를 그린 화가들로는 '孫一峰, 高義東'을

『신소년』의 <독자투고란>에 동요 <잠자는 동생>이 실린 후, 그는 '문학의 문턱'에서 같은 잡지에 '문예작품, 표지, 그림까지' 투고한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문예작품'은 『신소년』의 <독자투고란>에 투고한 동요와 같은 아동문학작품이다. 『신소년』이 1923년 10월에 창간하여 1934년 5월에 종간했으므로 그의 작품 투고가 도일하던 해 1924년까지 이루어졌음은 확실하다.

3.3 정보의 오독과 재생산

그는 '문학의 문전'에서 '입문'도 하지 않고 'ⅳ) 도일하여 귀국하기 직전까지의 일본 체류 생활'을 한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나 사정도 일본 생활도 거의 밝히지 않는다. 그가 밝힌 것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20세(1925년) 전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교포친구들과 공회당에서 연극 공연(③-266)
> 1925년 『신소년』에 동화 <뱀새끼의 무도> 수록되어 있음을 발표(④-285)
>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 <가난과 사랑> 입선(④-282)
> 1929년 히로시마에서 교포교육을 위한 사립 근영학원의 교사생활(④-283)
> 1931년 동경 南千住에서의 미전과 연극 구경 경험 - 아동문학가 穎木楠郎의 소개로 문학신문, 부인잡지, 등에 동요와 미술신문에 만화 발표, 大月源二와 村山知義의 과찬을 받음 (③-131~133)

비롯한 '李鐘禹' 등이 있다. 李鐘禹(1899~1981)는 1918년에서 1922년까지 동경미술학교 유화과를 다니다가 1923년에 귀국하여 1924년까지 중앙학교 도화 교사로 있으면서 신문, 잡지 등에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李鐘禹와 동시대 삽화를 그린 대표적인 근대 화가에는 高義東 (1886~1965), 孫一峰(1907~1985)이 있다. 이구열, 『우리 근대 미술 뒷이야기』, 돌베개, 2005, 155~168쪽.
_____, 「설초 이종우」, 『계간 미술 17』(1981 봄), 118쪽.

전기적 정보에서 본다면 그가 적어도 20세 전후, 곧 1925년 전후 일본 히로시마에 있었으며 이전에 도일한 것은 분명하다. 일본으로 간 동기나 사정은 전혀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간 곳은 히로시마[13]일 가능성은 크다. 그 가능성은 그가 히로시마의 공회당에서 교포친구들과 연극공연(③-266)을 했고, 그의 외종형 강의범이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히로시마가 합천지역 사람들의 집주화, 정주화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점[14]에서 그렇다

문제는 히로시마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그가 '문학의 문전'에서 아동문학작품의 투고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이미 4년 전에 투고만 해놓고 일본에 가서 있느라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 동화 <뱀새끼의 무도>가 진작 1925년도 『신소년』에 나 있었던 것을 처음으로 발견해 낸 일이었다(④-284~285)라고 적고 있다. 적어도 히로시마에서 그가 아동문학 작품의 창작과 잡지 투고 그리고 연극 공연은 도일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은 것은 분명하다.[15] 그는 히로시마에서 연극 공연에 관해서 다음과 회고하고 있다.

> 20세 전후 일본의 廣島서 교포친구들과 그곳 공회당을 빌려 했던 것으로, 각본은 물론 내가 쓴 것이었으나 내용도 제목도 지금은 까맣고,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연기 도중에 가발의 수염이 떨어져서

---

13) 그가 히로시마로 갔다는 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다. 예컨대 '이주홍은 고향인 합천에서 1918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하여 1924년에 한성중학원을 졸업했고, 그 뒤 도일하여 세이소쿠영어학교를 다니다 1928년에 졸업했으며, 곧바로 양인환(梁仁煥) 등이 설립한 근영학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고 한다'에서 그가 일본 동경으로 갔다고 추정하고 있다.
염희경, 「이주홍 생애 연보」, 97쪽.

14) 덧붙인다면 당시 히로시마는 1925년을 기준으로 하여 재일 조선인의 구성 비율이 2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조선인이 몰려던 곳이다.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33쪽.

15) 이를 그는 「촌뜨기 상경기」(④-282~283)에서 밝힌 바 있다.

> 웃음을 샀던 일과 내용이 불온하다 해서 임석경관이 廣島에서 떠나라고 추방명령을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을 뿐이다.(③-266)

인용에서 본다면 연극 공연에 관해서 확인 불가능한 것은 내용과 제목이며, 확인 가능한 것은 공연 연도, 공연 진행과 극장, 공연 에피소드, 내용의 불온과 임석경관의 추방명령이다. 인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동시대 연극사회학적 상황에 비추어서 보면 '공연 연도, 공연 진행과 극장, 공연 에피소드, 내용의 불온과 임석경관의 추방명령'의 의미 내용이다.

첫째, 공연 연도는 20세 전후, 곧 1925년 전후이다. 자필 이력서를 인용한 선행 연구는 그가 동경 영어 정칙학원을 다닌 시기를 '1925년 4월 1일부터 1928년 3월 26일까지 3년 동안'[16]으로 '1926년 4월부터 1928년 3월까지 2년 동안'[17]으로 달리 적고 있다. 아울러 히로시마 근영학원에 교사로 다닌 시기는 1928년 4월 1일부터 1929(1930)년 1월 31일까지이다. 요약하자면 1925년 전후 연극 공연 활동에 이어서 1925년 혹은 1926년 동경 영어정칙학원에 다닌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는 '내용의 불온과 임석 경관의 추방 명령'에 관련된다.

둘째, '내용의 불온과 임석경관의 추방명령'을 받았다면 그가 동경 영어정칙학원에 다닐 수 있었을까? 연극 공연과 그 '내용의 불온과 추방명령'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불온과 추방명령'을 받은 것이다.

당시 연극 공연이 1925년 전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조선과 일본에서 학생극이 금지된 1924년이 지나면

---

16) 류종렬은 그의 20세 전후(1925년) 공연된 연극 작품임을 본문에 인용하면서도 히로시마 근영학원에 근무(1928년 4월 1일과 1929년 1월 31일 사이) 하면서 한 공연으로 전제하고 있다.
류종렬, 「이주홍의 프로문학 연구」, 『비교문화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3, 27~28쪽.

17) 박태일, 「이주홍론 - 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87~109쪽.

서부터이다. 1924년 일본 '문무대신이 학생극을 엄금하며 곧 조선서도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18]하여 당시 일본에서는 학생극 공연이 통제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어 1925년 성립된 치안유지법이 학생들에게도 강압적으로 적용되면서 1928년 3월15일부터 사상범의 대량검거로 이어진다.[19] 특히 한국유학생들의 경우에는 1923년 박 열 사건이후에서부터 이미 사상범의 검거가 강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연극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서 본다면 그 연극은 학생극이 아님은 물론 일본이나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단체의 작품도 아님은 확실하다.

문제는 '내용의 불온과 추방명령'의 실체적 의미이다. 우선 '내용의 불온'에서 '불온'은 치안유지법의 근간이 되는 국체[20]의 변혁 및 사유 재산의 부인과 이에 관련된 단체 가입자에 한 한다. 당시 프롤레타리아 단체에 가입하거나 간접으로나마 관련했는지를 결코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는 '내용도 제목도 지금은 까맣고'라는 기억만을 진술할 뿐이다. 공연 작품의 내용에 관련된 어떤 기준에서 임석 경관이 '불온'하다고 '추방명령'을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 기준은 치안유지법에서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의 부인'이라는 것으로 분명하지만, 임석 경관의 적용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임석 경관이 '불온'을 적용한 사례

18) 『매일신보』, 1924.11.7.

19) 1925년 4월 22일 제정 공포된 치안유지법은 1922년 '과격사회운동취제법안'에 기원을 두고 1923년 칙령 '치안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을 거쳐서 확정된다. 이 법은 전체 7조로 되어 있는 바, 제 1조에서 그 목적을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 단체에 가입하는 것'에 관한 처벌이다.
한남제, 김철수, 「1920년대 치안유지법의 제정·적용과 식민지 지배」, 『평화연구 20』,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1995, 243~266쪽.

20) 국체라는 용어는 국가주의의 목적을 위해서 메이지유신 때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근대화와 서구화의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도 천황의 신민들에게 일본적 생활양식을 유지한다는 뜻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일본적 생활양식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의 일체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치안유지법의 적용을 받는 '국체의 변혁'이라는 것은 극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다.
리차드 H.미첼, 김 윤식 역, 『일제의 사상통제』, 한길사, chap.2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17년과 1918년 특별경찰의 중심적인 조직인 도서과에서는 '신문이나 잡지의 발매 금지 결정의 법적 규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기대고 있다거나, 1927년 일본 사법성에서 공식 설치한 사상과에서도 '사상범죄를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고백[21]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사례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예회의 여흥을 경찰 금지-선전 삐라까지 무리 압수, 이유는 사상이 불온하다고'[22]와 같이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본다면 임석 경관의 '내용의 불온과 추방명령'은 매우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다.

'내용의 불온과 임석 경관의 추방 명령'이 적어도 타당성을 가지려면 공연연극의 내용이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의 부인'에 관련되거나 사회주의사상에 관련된 경향성[23]을 가져야 한다. 임석 경관의 임의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내용의 '불온'은 공연 연극의 작품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더구나 그의 연극적 경험과 공연 진행 과정에서 볼 때, 공연 연극의 내용은 전혀 '불온'하지 않다. 만일 '불온' 연극이라면 그는 동경 영어정칙학원을 다닐 수도 없다. 만일 '불온' 연극이라면 그가 자필이력서에 기재한 '동경 정칙영어학교생'[24]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그렇다면 그가 공연한 연극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당시 연극사회학적 상황에서 본다면 학생극이 아님은 분명하다. 공연 진행과 극장 그리고 대본집필자가 이주홍이라는 사실에서 본다면 공연 연극은 동시대 전문극이 아니라 소인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이주홍의 연극 경력은 '협률사의 구극, 김소랑, 김도산 일행의 지방순회극단의 신파극,

---

21) 리차드 H.미첼, 『일제의 사상통제』, 24, 93쪽.
22) 『조선일보』, 1927.2.2.
23) L.Prayser, *Propaganda,*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pp.2~3.
24) 민병욱, 향파 연극의 지역예술자거 위치, 230쪽.
http://ja.wikipedia.org/wiki/正則英語學校

남사당의 놀이' 등을 관람하고 그의 작품 <병모>를 각색하여 연출하고 '우편국 놀이'를 한 것[25]뿐이다. 이러한 구극, 신파극 등이 그의 연극적 모델이므로 공연 연극은 크게 소인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당시 일본 근대극이나 재일노동자 극을 비롯한 연극적 경험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히로시마도 역시 당시 일본 연극 공연의 주변 지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회당에서 공연한 연극도 소인극 공연의 범위[26] 속에 있다. 이러한 범위에 있으므로 공연 에피소드 '연기 도중에 가발의 수염이 떨어져서 웃음을 샀던 일'도 가능할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25년 전후에 공연된 연극은 소인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내용이 '불온'한 것도 전혀 아니다. 만일 '볼온' 연극이고 '추방 명령'까지 받았다면 그는 동경 영어정칙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고 처벌을 받거나 조선으로 귀국했어야 할 것이다. 자필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어정칙학교에 다녔고, 히로시마 근영학원 교사도 했다.

3.4 정보의 재생산과 오독의 재생산

'내용의 불온과 임석 경관의 추방 명령'은 그의 프로의식으로 재생산되는 바, 그 대표적인 사례의 근거가 되는 것은 1931년의 「스미다 강의 5월」과 1945년 거창검사국 피검 사건이다. 1931년 「스미다 강의 5월」에서 그의 프로의식에 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5) 그는 막을 담요로, 개막 신호를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호루루루 부는 것으로, 징을 목침을 두드리는 것으로, 공연장을 머슴들의 모중방을 겸한 내 집 옆방, 소도구는 둥게미나 목침 등으로 한 연극적 경험을 자술하고 있다. ①-214, ③-265, ④-270~271, ④-272~273.

26) 당시 일본신극사에서 본다면 히로시마는 일본 근대극공연과 재일 한국인의 연극공연에서 제외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倉林誠一郎, 『新劇年代記(戰前編)』, 白水社, 1972, 444面.

> 1931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30년하고도 두 해 전 일이다. 머물러 있던 곳이 南千住였기 때문에… 아동문학가 槇木楠郎씨가 소개를 해주어서 문학 신문이나 부인 잡지 같은 데에 주장 동요를 발표했고 미술신문 같은 데는 만화를 그려서 그 방면의 대가 大月源二나 村山知義 같은 사람들의 과찬을 받기도 했다.(③-132~133)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1931년(나이 26세)에 동경 南千住에 있었다는 것, 아동문학가 槇木楠郎를 만나서 문학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 받아서 주장이나 동요를 발표했다는 것, 주장이나 동요나 만화로 大月源二, 村山知義의 과찬을 받았다는 것이다.

첫째, 그가 동경에 체류하고 있었던 해가 1931년이다. 선행 연보들에서는 귀국시기를 '1929년 봄' 귀국하여 『신소년』의 편집자가 된 것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내가 영광의 신소년 편집일 맡아보게 된 경위의 이면에는 또하나 걸쳐진 다리가 있었다. 그것은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공모에 나의 단편 「가난과 사랑」이 입선된 일이었다. (…)
>
> **그 때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교포교육을 위한 사립학교 근영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적이었다. 나는 신춘문예에 응모하기 전에도 의종인 강의범 형이 다니던 광도고사의 우리나라 학생그룹이 내는 잡지에 소설을 한 편 얻어 실은 적이 있었으나, 그것은 어느 쪽이냐 하면 다다 같은 다분히 난해한 내용의 소설이었다. 어찌 했거나 내 역량을 스스로 회의하고 있었던 그 무렵에 신문에 뽑혔다는 것은 나의 행로가 정해졌을 만큼 획기적인 의의가 있었더 것임과 함께 분발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
>
> **드디어** 나는 행장을 챙겨들고 현해탄을 건너 서울로 갔다. 학원의 일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나 아니라도 남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었다.
>
> **그 때에** 충천의 대망을 품고서 서울에 뛰어 올라 온 사람은 나 말고도 당시에 권위 있었던 잡지 『조선지광』에 소설 「흘러간 마을」이 당선된 엄흥섭과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부에 당선된 손풍산 등이 속속 서

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제 자유였지만 자리를 잡고 정착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전기한 의종형의 동서가 되는 신영철형의 신세를 졌다. (…) 형은 **그때** 개벽사에서 편집일을 보고 있었는데 …(④-282~283, 고딕체-인용자)

첫째, 인용에서 '1929년, 그 때는, 드디어, 그 때에, 그 때'를 같은 시기로 보면 그의 귀국 시기는 '1929년'이 분명하다. 그 시기들이 같은 시기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준거는 인용의 '잡지 『조선지광』에 당선된 엄흥섭과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부에 당선 손풍산 등이 속속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과 '신형철형이 개벽사에서 편집일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지광』은 1922년 11월 1일 창간되어 1932년 12월 통권 100호로 폐간된 프로문학을 지향하는 잡지이다. 1930년 1월에 발간한 『조선지광』 제 89호[27]에 엄흥섭의 소설 「흘러간 마을」이 수록되어 있으며, 소설의 말미에 '1929.12.15.' 로 적고 있다. 이 소설을 계기로 엄흥섭(1906~?)은 1929년 무렵 상경하여 1930년 카프 중앙위원이 된다.

『조선일보』의 신춘문예제도[28]는 '1927년 11월에 이듬해 1928년 신년을 맞아 문예작품을 모집하는 광고'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른다. 손풍산(1907~1973)[29]은 제 2회 시부문에 당선되어 상경한다.

출판사 개벽사[30]는 천도교에서 1919년 9월 2일 창립하여 1935년 3월

---

27) 엄흥섭, 「흘너간 마을」, 『조선지광』 제 89호, 1930.1, 38~49쪽.

28) 김석봉,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192 쪽 이하.

29) 손풍산은 『조선일보』 1928년 1월 29일 의 「신시」 난에 <술을 마시고를> 기고하여 처음으로 작품을 발표하나 신춘문예 당선자는 아니다. 그는 『조선일보』에 1928년에 시 7편과 문예만담을 2번 기고하지만 1929년 이후부터는 기고하지 않는다.

30) 출판사로서 개벽사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에 의존하고 있다.
류석환, 「개벽사의 출판 활동과 근대 잡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협동과정

에 폐업한다. 출판사로서 그 조직 구성은 '편집국- 조사부, 정경부, 사회부, 학예부, 영업국- 경리부, 판매부, 광고부, 대리부, 서무과'로, 사원의 직책은 '고문, 사장, 주간, 편집국장, 영업국장, 각부 과 주임, 각 지사 분사 사장 겸 사원'으로 되어 있다. 1920년에서 1935년에 이르기까지 개벽사는 9종의 잡지를 발행하는 바, 『개벽』(1920.6～1926.8/1934.11～1935.3), 『부인』(1922.6～1923.8), 『신여성』(1923.9～1926.10/1931.1～1934), 『어린이』(1923.3～1934.11), 『별건곤』(1926.11～1931.2), 『학생』(1929.3～1930.11), 『혜성』(1931.3～1932.4), 『신경제』(1932.5～1932.8) 『제일선』(1932.5～1933.3)가 그것이다. 신영철은 중국 특파원 이우명(필명 이동곡)의 소개로 1925년 1월경에 입사하여 여성부를 맡아서 폐사 때까지 재직했다. 신영철의 입사시기를 비추어 볼 때, 그는 복간 이전 『개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잡지들을 다 맡을 수 있었다. 적어도 신영철이 1925년부터 1935년 사이에는 경성에 있은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영철 '형이 개벽사에서 편집일을 보고 있었는데'는 '개벽사에서 여성부에 있었는데'로 정정하는 것이 정확하다.[31]

이와 같이 '1929년, 그 때는, 드디어, 그 때에, 그 때'를 다른 시기로 볼 개연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귀국시기에 관해서 그 스스로 혼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1925년에 동화 「뱀새끼의 무도」가 발표되고 1929년 조

(석사논문), 2007.2,

31) 아울러 그 스스로 "『개벽』이 나의 유일한 무언의 스승이었고 동시에 나로 하여금 문학의 동산 속에 들게 해준 은혜로운 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①-215)"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히로시마에 정착할 때 의종형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서울에 정착할 때 도움을 준 의종형의 동서 신영철이 개벽사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개벽사에서 발간한 잡지들에 전혀 작품을 발표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개벽』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잡지의 형식이며, 그래서 그는 『개벽』을 모방하여 사제 잡지를 만들었다(①-217～219, ④-275～279)는 진술은 잡지라는 책의 형식에 관한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 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가난과 사랑」이 입선된 이래 서울에 있으면서[32]

> 27,8세 전후 동경에서 돌아와 고향의 합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엔 『조선문학』지 같은 데에 소설을 발표하는 한편에 연극도 두세 회의 공연을 가졌다.(③-266)

그의 나이 '27,8세 전후'는 '1932,33년 전후'이다. 인용에서 그 스스로 귀국시기를 '1929년'과 '1932,33년'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스미다 강의 5월」에서 1931년에 동경에 있었다는 자술을 덧붙여서 본다면 그의 귀국 시기는 더욱더 혼란스럽다.

둘째, 그의 귀국 시기와 마찬가지로 「스미다 강의 5월」의 시기로 혼란스럽다. 그 글은 1974년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제신문에 "청춘은 아름다워라" 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그의 비망록이다. 글의 서두에 '1931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30년하고도 두 해 전 일이다'라고 쓴 것을 보면 '지금'은 '1963'년이다. 만일 '지금'이 그가 글을 쓴 '1974년'이라면 그 글은 '30년하고도 두 해 전, 1942년'이다.

첫째, 둘째에서와 같이 그의 귀국시기, 그가 동경에 있었던 시기는 혼란스럽다. 마찬가지로 그가 '아동문학가 槇木楠郎씨가 소개를 해주어서 문학 신문이나 부인 잡지 같은 데에 주장 동요를 발표했고 미술신문 같은 데는 만화를 그려서 그 방면의 대가 大月源二나 村山知義 같은 사람들의 과찬을 받기도 했다'는 것도 여전히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와 일본 프로예술가들, 곧 아동문학가 槇木楠郎(1898~1956), 미술가 大月源二(1904~1971), 연극운동가 村山知義(1901~1977) 간의 관계도 여전히 신빙성을 가지 못한다.

「스미다 강의 5월」과는 달리 거창검사국 피검 사건은 「戱作拾遺」(①-76~86), 「감옥의 문- 나의 8·15 화상」(②-202~203), 「옥문 열린 날」

32) 이주홍, 「부산문학사략」, 『부산문학 6』,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 1973, 76쪽.

(④-296~298)에서 자술하고 있는 바, 그가 서울에 피검되어 합천서로 이송되고 거창검사국으로 송치되어 8·15 해방 다음 날 풀려난 사건이다.

> 해방 되던 해 봄이었다. 어마어마한 죄명을 둘러쓰고 나는 서울에서 내 고향인 합천으로 끌려 내려갔다. 고향에 있던 내 친구 여섯 사람은 이미 먼저 붙들러 들어와서 각호 감방에 분치되어 있었다. (…) 8·15를 며칠 사이에 두고 우리 일행이 거창검사국으로 송치되고(…) 8·15의 해방 덕택으로 우리는 8월 16일엔가 17일엔가 놓여 나왔다.(①-76~77)

> 나는 직업적인 반일운동자가 아니었지만 8·15 해방은 감방에서 맞이했다. 서울에서 봄에 붙들려 고향인 합천서에서 여름을 지내다가 廣島에 원폭이 떨어진 뒤 8월 8, 9일 경(?)에 거창검사국으로 송치되어 그곳의 감방에서 해방 때까지 있은 것이다. 내가 요시찰인 된 것은 프로문학에 참가하고 또 지방에서 프로연극 같은 것을 한 다음부터였다. 오랫동안 미움을 받아 오던 끝이라 전쟁 말기에 그들이 끝맺음을 하렸던 것은 그리 괴이한 일이 아닌 것이었다.(②-202)

> 진작부터 요시찰인으로 감시를 받아 왔고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수차나 내 하숙에서 가택수색을 받아온 뒤라 위태위태한 생각이 들고는 있었던 다음이었다. 고향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 일본 전력의 열세, 일본이 항복하는 경우의 한국인의 장래 같은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정탐을 철저하게 해 왔던지 샅샅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의 유무를 추문하는 것이었다.(④-297))

인용에서 그는 '프로문학에 참가하고 또 지방에서 프로연극 같은 것을 한 다음부터' 요시찰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요시찰인의 선정은 경찰의 일로서 '일제의 조선지배에 저항하거나 불평불만을 토로할 가능성만 보이면 대상이 된 것'이며, 요시찰인은 '사회주의인가 민족주의인가에 관계없이 대개 불온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 곧 아직 구체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험한'

사상의 소유자에게 붙여졌다.[33] 따라서 그의 피검은 일제 경찰의 시선으로 볼 때 '불온'한 것이며, 그 불온이 곧 항일저항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검 사건은 그가 사회주의자이거나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일제에 대한 '위험한', 곧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는 것에 자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제 말기 창작한 일어체 작품들도 항일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다. 일제의 시선에서 본다면 그는 단지 '불령선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이주홍의 문학연구에 있어서 선행 연구들이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는 전기적 정보, 특히 1945년 8·15 해방 이전까지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홍의 문학과 삶에 대한 전기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서적인 수필집으로는 『예술과 인생』(1960), 『조개껍질과의 대화』(1961), 『뒷골목의 낙서』(1966), 『격랑을 타고』(1976)가 있다. 이 책들을 중심으로 그의 전기적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생에서 상경 직전까지의 고향 생활, 상경에서 귀향하기까지의 서울 고학생 생활, 서울에서 낙향하여 도일하기직전까지의 고향 생활, 도일하여 귀국하기 직전까지의 일본 체류 생활, 귀국하여 해방 직후까지의 서울 생활, 부산에서의 생활로 나누어진다. 그 가운데 앞의 세 시기는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를 꿈꾸던 문학예술 지망생 시절, 뒤의 세 시기는 문학예술가로서 활동하던 시절이다.

둘째, 그가 가장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전기적 정보는 출생에서 상

33) 장신, 「일제하의 요시찰과 왜정시대 인물사료」, 『역사문제연구』, 역사문제연구소, 2003, 143~177쪽.

경 직전까지의 고향 생활이다. 그의 고향 생활은,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오직 생존 욕망을 가진 어린 시절, 서당을 다니면서 중국 고전을 배우고 한시를 창작한 시절, 그림 그리기를 유일한 취미로 가진 보통학교 시절, 당시 어린이 잡지들에 접하지만 전혀 흥미를 가지지 못한 보통학교 졸업 후 시기로 구별된다. 이러한 고향 생활을 기억의 혼란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추억담으로 제시하면서 그는 유교적 사유와 한시 창작 경험, 회화 경험을 문학예술적 생애의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셋째, 이어서 그는 상경에서 귀향하기까지의 서울 고학생 생활과 낙향하여 도일하기 직전까지의 낙향생활을 한다. 이 시기는 그가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를 꿈꾸던 문학예술 지망생 시절이다. 그는 서구 영화와 광무대의 구극, 김소랑 김도산 일행의 신파극, 남사당 공연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동시기 문학 잡지와 동인지를 접하게 된다. 이를 모방하여 그는 연극 공연과 연극놀이를 하거나 사제잡지들을 만들기도 한다. 현진건의 <빈처>를 모델로 하여 그는 희곡 작품 <病母>를 창작하고 연극으로 공연까지 하면서 문학가의 길로 들어는 계기를 만든다. 그 계기를 세 차례에 걸쳐서 기억의 혼란을 통한 정보를 재구성한다. 그 결과 그는 동시대 리얼리즘 소설을 문학적 스승이나 모델로 설정하지도 못하고 이미 해체 과정에 있는 지방순회 극단의 신파극 공연을 받아들임으로써 연극적 스승이나 모델도 설정하지 못한다. 문학적 연극적 스승이나 이상적 모델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면서 그는 잡지『개벽』을 스승으로 삼고서 문학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아동문학으로 진입하여 잡지를 만들거나 표지를 장정을 하는 길러 나선다.

넷째, 문학의 문전에서 입문도 하지 않고 그는 도일하여 귀국하기 직전까지의 일본 체류 생활을 한다. 그는 일본 체류 생활을 거의 밝히지 않고 기억의 혼란과 불분명한 회상으로 몇 가지 기억만을 밝힌다. 그 기억들은 그가 일제에 저항한 '불온'한 문학예술가임을 증명하는 정치적

해석의 근거로 증폭하게 되는 것은 물론 특정 집단에 의해서 부산지역 문학의 대가에서 한국 근대문학사의 대가로 우상화 되는 계기가 된다. 제목과 내용마저 완전히 잊은 작품의 '불온'은 당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며, 소인극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도 않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그 연극을 공연한 시기만 회상할 뿐, 일본 생활의 경험을 숨기면서 특정한 경험의 시기도 혼란스럽게 진술할 뿐이다.

다섯째, 작품의 '불온성'에 대한 증폭은 그가 귀국하여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계속된다. 그의 '불온성'은 일본프로문학예술가들, 槇木楠郎, 大月源二, 村山知義에 대한 진술과 8·15 해방 직전 거창검사국 피검 사건의 진술로 증폭된다. 일본 프로문학예술가들에 대한 진술은 만남의 시기, 귀국 시기, 진술 시기에 관련하여 전혀 신빙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거창검사국의 피검 사건도, 당시 일제의 식민지 통치방식의 하나인 요시찰인 제도에서 본다면 불온이 곧 항일저항행위가 아니며 막연히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끝으로 이주홍의 전기적 정보가 더욱더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오독되고 문학과 삶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재생산이 계속 이어지기 전에 그의 문학 생애는 구체적으로 실증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이주홍,『격랑을 타고』, 삼성출판사, 1976
_____,『뒷골목의 낙서』, 을유문화사, 1966
_____,『예술과 인생』, 세기문화사, 1960,
_____,『조개껍질과의 대화』, 성문각, 1961
김인덕,『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류종렬,『이주홍과 근대 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박경수,『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 국학자료원, 2010
박태일,『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 청동거울, 2004.
민병욱,『문학의 이론』, 탑북스, 2012,
서연호,『한국연극사』, 연극과 인간사, 2003.
이구열,『우리 근대 미술 뒷이야기』, 돌베개, 2005
倉林誠一郎,『新劇年代記(戰前編)』, 白水社, 1972.
리차드 H.미첼, 김윤식 역,『일제의 사상통제』, 일지사, 1982
H.블룸, 윤호병 옮김,『시적 영향에 대한 불안』, 고려원, 1991
H.블룸, 양석원 옮김,『영향에 대한 불안』, 문학과 지성사, 2012
L.Prayser, Propaganda,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pp.2~3.

김만석,「요산과 향파 소설의 공간 정치학」,『인문학 논총 26』,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24쪽.
김석봉,「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185~220 쪽.
류석환,「개벽사의 출판 활동과 근대 잡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협동과정 (석사논문), 2007.2,
류종렬,「이주홍 연보」,『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423~437쪽.

민병욱, 「향파 연극의 지역예술사적 위치」, 『이주홍 문학 저널 4』, 214~236쪽.

박태일, 「이주홍론 - 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소설시대 6』, 한국작가교수회, 평민사, 2003.10, 87~109쪽

엄흥섭, 「흘너간 마을」, 『조선지광』 제 89호, 1930.1, 38~49쪽.

염희경, 「이주홍 연구 서지」, 김인환·정호웅 외,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2006』, 민음사, 2006, 137~155쪽.

이구열, 「설초 이종우」, 『계간 미술 17』(1981 봄)

이유생, 「전기 연구의 이론과 현대적 의미」, 『영미어문학 78』, 한국여미어문학회, 2006, 139~159쪽.

이주홍, 「부산문학사략」, 『부산문학 6』,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 1973.

장신, 「일제하의 요시찰과 왜정시대 인물사료」, 『역사문제연구』, 역사문제연구소, 2003, 143~177쪽.

정상희, 「풍산 손중행의 길」, 『지역문학연구 7』, 경남지역문학회, 2001

한남제, 김철수, 「1920년대 치안유지법의 제정·적용과 식민지 지배」, 『평화연구 20』, 경북대 학교 평화문제연구소, 1995, 243~266쪽.

<Abstract>

A Study on the misreading and biographical information of Lee Ju Hong

Min, Byung-wook

This paper observed the biographical information of Lee Ju Hong and his follower's political misreading. The result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His followers are apt to idealize his Biography and hid Arts. And then they reproduce his Dittoheads and praise excessively him for the purpose of worldly power.

2) He wrote the story of his own life three books. His autobiographies require confirmation. He distorted, omitted, idealized biographical facts intentionally. Also his followers twisted the story of their own advantage.

3) I made certain of the truth of the matter as follows. Just prior to live Seoul City Life, Going back to the home life, Going to Japan and his life in Japan, Returning to home and his home life.

4) He distorted his life in Japan seriously and his followers has consistently followed in his footsteps. As the result, He was branded as anti-Japan strikers and was under Japan control.

5) No, never, it isn't so. Like general people, he had discontented sentiment for Japanese Colonial hazily. His attitude and writings were not anti-Japan. He was not a person of practical mind and praxis. He was an opportunist for art world and art power.

6) The serious issue is his followers reproduce vulgar misreading of his arts and life. And they think little of objective biographical facts.

Finally His biographical facts are now confronted with almost insurmountable difficulties.

Key Words : Lee Ju Hong, biographical information, memory confusion, political misreading, discontented sentiment, Japanese Colonial, anti-Japan striker, vulgar misreading

▌논문접수 : 2014년 10월 29일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